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영암군, 94일만에 가축시장 ‘재개장’

미해제 8개 농가 3주간 이동제한 유지
138개 농가 참여·348두 거래로 ‘활기’

영암군이 구제역 발생 94일 만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가축시장을 재개장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 일부 농가를 제외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전남 가축시장을 재개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3일 구제역 발생 이후 94일 만이다.
영암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달 21일 영암의 한 농가에서 무증상 구제역이 발생해 소를 살처분한 후 3주가 지난 12일부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5일 최종 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자 이동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자연감염항체 증가 농가 등 8개 농가는 앞으로 3주간 이동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승회 영암군수가 지난 16일 구제역 확산으로 폐쇄됐다가 재개장한 도포면 영암축협 가축경매시장을 찾아 농민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다. 영암 도포면의 방역대 이동제한이 선별 해제됨에 따라 지난 3월10일 이후 폐쇄됐던 가축시장도 재개장했다. 각종 행사 전면 취소 및 축소 등 조치로 구제역 방역을 강화해온 영암군은, 그동안 송아지를

제때 출하하지 못해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 단계에 이르렀음을 감안해 이동제한 해제와 가축시장 재개장 결정을 내렸다.
매주 월요일 개장하던 가축시장은 농가 경영 안정, 한우 거래 확산 등 지역 축산업의 활기를 위해 주 3회 운영될 예정이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듯, 재개장된 가축시장에는 138개 농가가 참여해 348두의 송아지를 거래하며 활기를 띠었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양돈 농가도 이번 해제에 따라 축사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위생적 축산 환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구제역 방역에 협조해 준 군민과 지역사회에 감사하다”며 “8개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를 포함한 구제역 종식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은 1천237개 농가에서 소 6만1천354마리를 사육 중이며 이번 구제역으로 소 45마리를 살처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섬과 예술 잇는” 신안국제문페스타 내일 ‘팡파르’

19-22일 우이도·도초도·흑산도 일원
국내·외 예술가 공연·토크쇼 등 다채
섬 생활·문화유산 체험...여행형 축제

▶ 지난해 도초면 수국공원과 우이도에서 열린 '2024 신안 국제문페스타' 행사 모습.

〈극단 갯돌제공〉



섬의 문화와 자연을 배우는 2025 신안국제문페스타가 19-22일 신안군 우이도, 도초도, 흑산도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1801년 흑산도에서 흥어를 사서 돌아오던 중 태풍을 만나 조선 역사상 가장 긴 표류 여정을 남긴 신안 우이도 출신 문순득(1777-1847)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극단 갯돌과 (사)세계마당아트진 흥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섬과 바다, 사람과 예술을 잇는 섬 문화 축제로, 섬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이 직접 참여해 섬을 배우고 이동하며 경험하는 ‘섬 로드 스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25 신안국제문페스타”의 로드 스킨에 사전 신청한 여행자들은 3박4일 동안 우이도, 도초도, 흑산도를 차례로 탐방하며 각 섬의 역사, 생태, 문화를 배우고 지역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정은 20일 문순득의 고향 우이도에서 시작

된다. 참가자들은 문순득 생가를 찾아 추모의례를 하고, 성황당터, 정약전 적거지, 돌담길, 우이도 선착장 등을 걸으며 섬의 옛 풍경을 만난다.
다음 코스는 도초도로 이동해 화도 선착장, 영화자산어보 촬영지, 수국공원, 고관리 석장승 등을 둘러보며 도초도의 섬 생활과 문화유산을 체

험한다. 특히 ‘섬 산다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직접 경험한다.
축제의 마지막 코스인 흑산도에서는 진리당 숲, 흑산성당, 박득순 미술관, 철새박물관을 탐방하고, 문페스타 행사에 참여하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21일 오후 흑산도 예리항 선착장은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펼쳐지는 환상적인 예술 무대가 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흑산도 출신 시인이주빈의 토크쇼가 열리며, 참가자들은 흑산도의 풍경과 내면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은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풀베 피우기 소원제’로 대미를 장식한다. /신안=양홍 기자

나주시,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동부권 5개 읍·면 인프라 확충
국비 236억 확보...농촌 활성화 기대

나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23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7억 원을 확보하며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활성화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총 337억원 규모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동부권 5개 읍·면(남평읍, 금

천면, 산포면, 봉황면, 다도면)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나주시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시범지구에 참여하고 탄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나주시는 농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5개 농촌공간계획 시범 지자체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선도적인 모델 구축에 주력해 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주거, 정주 여건,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농촌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22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0년부터 도입됐다.
시는 2021년에도 농촌협약에 선정돼 현재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2028년까지 총 32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번 동부권 중심의 농촌협약 사업 선정으로 권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 개발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연말까지 기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농식품부 검토와 승인을 거쳐 세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나주시장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집행에 돌입한다. /나주=정종환 기자

강진 ‘청자5호’ 서리태 재배 면적 6배 확대

양곡·제과업체와 약 540t 규모 계약
생산·유통 지원 강화...소득작물 육성

강진군은 17일 “지난해 시범 계약재배를 시작한 신품종 서리태 ‘청자5호’의 올해 재배 면적을 6배 이상 늘려 180ha 규모, 약 540t을 전량 계

약재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해 국내 양곡 유통회사(두부보)와 150ha, 제과업체와 30ha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청자5호’는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으로, 기존 서리태보다 병해와 쓰러짐에 강하고 수량이 30%가량 높은 품종이다.

꼬투리가 높게 달려 기계수확에 유리하며, 꼬투리 터짐도 적다.
기능성, 단백질 함량, 가공 적성에 뛰어나 가공업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올해 논콩 목표 700ha를 초과 달성해 781ha를 확보했으며, 이 중 서리태는 약 30%를 차지한다.
백태보다 소득이 높은 서리태 면적을 점차 확대해 벼를 대체할 효자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시, 인사개혁 방안 발표...공정·실효성 ‘우려’

기존 인사추진속...찬스 인사논란 여전
시 “개선안 충실...의구심 불식시킬 것”

목포시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실행 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소통·공감하는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현행 인사시스템 일부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담보하는 인사행정 운영, 본인의 역량을 키울 기회 보장, ‘일 잘하는 조직문화’ 확산, 국·과장 권한 확대와 책임성 강화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전보제 시행 ▲국·과장 추천제 도입 ▲사무업무 8급 이하 직원 배치 ▲고충·경력·역량 종합 고려 배치 ▲고충관리 전산·시스템화 등이 담겼다.
목포시는 관련 공문 발송, 새을 게시판 홍보, 희망 보직 신청과 추천 사유 구체적 작성, 데이터 축적을 통해 수시 및 추후 인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인사라인과 인사위원회가 변함없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정책 실행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측근 위주 보직, 소위 ‘찬스 인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며, 국·과장 추천제가 오히려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인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목포시의회 한 의원은 “목포시는 지난 3년간 ‘적재적소 인사’, ‘공정한 승진 기회’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내부의 깊은 실망과 시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2년 넘게 보직을 기다린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 반면, 승진 6개월 만에 주요 보직을 맡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와 가까운가가 중요해진 인사 풍토가 문제라며, 2025년 하반기 인사는 지자체장 부재 속에서 단행되는 첫 인사인 만큼 조직 운영의 기준과 방향이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시장 권한대행의 전보설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여러 의구심을 불식시키겠다”고 답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지난 16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56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운남면민들이 입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10만 군민 단합”...무안군민의 날 행사 ‘성료’

9개 읍·면 군민 무지개 퍼포먼스 ‘눈길’
무안군은 17일 “전날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제56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가 10만 군민의 단합된 열기와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17일 “전날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제56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가 10만 군민의 단합된 열기와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6회를 맞은 군민의 날은 바쁜 농번기 중에도 군민과 향우, 내외 귀빈 등 5천여명이 함께하며, 무안군민의 자긍심을 되새기고 군민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는 ▲품종 길놀이와 9개 읍·면의 무지개 입장식 ▲군정발전 유공과 효자·효부 표창 ▲푸른동행 Clean무안 선포식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군민 단체 화합경기(5종) 등 군민 참여 중심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시작과 함께 진행된 ‘무지개 입장 퍼포먼스’는 각기 다른 색상의 옷을 입은 9개 읍·면 군민이 함께 입장하며, 무안의 다양성과 조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또한 광주KBC 특집 공개방송 축하공연에서는 진성, 김혜연, 현진우, 허찬미, 박우철, 농수로 등 인기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해 농번기로 지친 군민들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농 균형발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다채롭고 조화로운 미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연꽃축제를 시작으로 하반기 무안향토갯벌축제, 운남면 둔세고추제, 무안갯벌낙지축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통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김상호 기자